

# 전남 도로 교량이 불안하다... D등급 이하 '전국 세번째'

### 긴급 보수·보강 필요한 '미흡'·'불량' 교량 20곳...영광 7곳 '최다' 광주 제2광천교 C등급 회복...점검업체 입찰 등 시스템 개선해야

지난해 연말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전국 도로 교량 중 10%가 전남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신도시의 정자교가 예고 없이 무너져 보행자 한명이 숨지고 한명이 다쳐 도로 교량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남에서는 최근 3년간 미흡 판정을 받은 도로 교량이 20개 수준을 유지(2020년 22곳, 2021년 20곳, 2022년 20곳)하고 있어 안전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분당 을)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시설물·교량 안전진단 등급별 현황'에 따르면 전남지역 D등급 이하 도로 교량은 20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지역별로 강원 57곳, 경북 42곳 다음이다. 이어 충남 17곳, 전북 16곳, 경기 14곳, 충북 12곳, 경남 6곳, 서울 3곳, 부산 1곳 순이다. 전국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도로교량 189개의 10%가 넘게 전남에 있는 셈이다.

도로교량에 대한 안전등급은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로 나뉜다. D 등급은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로, 사용 유형에 따라 교량 통행 여부를 결정한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내려지며 등급 처분과 동시에 즉각 사용을 금

지하고 보강·개축해야 한다.

광주에서는 2019년 광주시 서구 광천동의 제2광천교가 D등급을 받았으나 3년간 관리·보수해 올해 1월 2일 C등급으로 회복됐다.

전남에서는 영광이 7곳(풍운교·포천교·삼당1교·장고교·명당교·서평교·예촌교)으로 가장 많았다. 순천 3곳(교량교·연향교·개운교) 장흥 3곳(지정교·가학1교·발실교)이 다음이었으며, 고흥(신흥교), 진도(오산교), 담양(동산교), 강진(봉림1교), 나주(영산대교), 신안(중도 장동어다리), 해남(신방교)이 각 1곳으로 집계됐다.

교량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위치에 따라 지자체와 도로관리사업소, 한국도로공단 등으로 나뉜다.

점검은 모두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안전점검은 1년에 2번, 정밀안전점검은 준공 3년 후부터 2년에 한번씩, 정밀안전진단은 준공 10년 후부터 5년에 한번씩 받는다. 교량의 종류는 크기에 따라 1-3종, 기타로 나뉘는데, 정기점검은 모든 시설물이 대상이지만 정밀점검은 1종과 2종에 한정, 정밀안전진단은 1종만 점검하는 방식이다.

전남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교량은 대부분 3종이지만 순천 교량교와 나주 영산대교 등 2곳은 '2종 교량'이다.

최근 인명사고가 발생한 분당의 무너진 정자교가 안전등급에서 보통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관리체계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보다 안전한 교량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노후화가 비교적 될 시기에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해야 하는데, 녹이 다 슬고 낡은 상태에서 고치려 하면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것

이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어 "사회안전시스템의 고질적 문제가 '점검업체 입찰제도'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가 50여년이 지나도 튼튼한 이유는 점검 업체 선정시 10년, 15년 계약을 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전문성이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점검 시스템은 상체에 반창고 덧대기를 반복하는 것과 같다. 다년간 계약으로 '주치의'처럼 처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음주운전 단속 밤낮없다

최근 대전에서 대낮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남부경찰이 12일 오후 남구 효천초등학교 스포츠클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대병원 뇌사자 장기기증 '전국 최다'

### 지난해 13명 기증...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등 노력

지난해 전남대병원에서 장기기증을 한 뇌사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남대병원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대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장기기증을 한 환자는 13명으로 뇌사판정·뇌사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전국 99개 의료기관 중 가장 많았다.

올해도 3월 기준 7건의 장기기증이 이뤄져 전국 1위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인체조직기증 역시 지난해 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이식은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첨단 의료 분야다.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매년 4만명에 달하지만, 기증자는 매우 적어 하루 평균 6.8명의 대기자가 숨지는 상황이다.

전남대병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을 통해 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창환 전남대병원 진료부원장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원내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함께 전남대병원 차세대 통합병원정보시스템(e-SMART)도 개선해 의료진들이 뇌사 추정자를 한눈에 확인하고 통보할 수 있게 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충청호남지부는 전남대병원 뇌사 추정자 가족과 적극적인 면담으로 뇌사자 장기기증이 늘어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장기기증자 가족과 수혜자 간 온라인 서신교환 프로그램인 '생명나눔 희망 우체통' 운영으로 생명의 온기를 나누는 후속 사업도 하고 있다.

최수진나 전남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신경외과와 응급의학과 등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지원으로 뇌사자 장기기증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교육청 '학부모 아카데미' 19일 첫 특강

### 이성준 대입지원관 강의

학부모들이 어려워하는 복잡한 대학 입시전형 등 자녀 진학 문제를 쉽게 풀이해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광주교육청이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 특강'을 시작한다. 학부모 아카데미는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진학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유명 대입 전문가를 초청, 전문적이고 정확한 대입 정보를 제공한다.

첫 강의는 '대입 완전 초보 탈출'이라는 주제로 19일 오후 7시 광주교육연구정보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송실다·중앙대 입학사정관, 서울시립대



책임입학사정관을 역임한 대학 입시 전문가인 광주시교육청 이성준(사진) 대입지원관이 강사로 나선다.

이어 월별로 학종 평가의 모든 것(5월), 대입 모집요강과 대학별 입시결과자료 해석법(6월), 학교에서 끝나는 학생부종합전형 준비(9월), 학생부교과전형을 위한 대학 활용법(10월),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과목 선택과 대학의 평가(12월) 등을 주제로 운영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https://naver.me/xPpK8vBp)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광주 남구 15일 백운광장서 '소확행 나눔장터'

광주시 남구 백운광장 일대에서 15일 다채로운 '벼룩시장'이 열린다.

남구는 "15일을 시작으로 올해 4차례에 걸쳐 백운광장 일대에서 '소확행 나눔장터'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나눔장터는 백운광장을 광주시 대표 관광 명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장터는 5가지 테마(물품 나눔, 전시나눔, 체험나눔, 공연나눔 정보나눔)로

구성되며, 다양한 공연도 진행된다.

물품 나눔 장터에서는 의류, 장난감, 도서 등이 판매되며 전시나눔장터에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결과물을 만나볼 수 있다. 정보 나눔 장터에서는 구청 주요 부서와 함께 다양한 시책 정보 공유 시간을 갖는다. 또 체험·공연 나눔장터에서는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캘리그래피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버스킹과 매직쇼 등을 관람할 수 있다.

/김다민 기자 kdi@

## 제 68회 호남예술제

###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2023. 4.26수 - 7.6목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호남신학대학교

### 전통의 종합예술대전 전국대회

신청기간

음악·무용·국악 부문

2023. 4. 6(목) - 4. 12(수)

미술·작문 부문

2023. 7. 3(월) - 7. 6(목)

참자자격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경연기간

4월 26일(수) ~ 7월 6일(목)

참가부문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자세한 내용은 대회요강 참조)

접수방법

우편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광주일보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 (우 61482)

인터넷 신청

http://art.kjmedia.co.kr(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2023년 4월 19일(수)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시상

개인 및 단체: 최고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문의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